

# 해외의약뉴스

항체검사는 예방단계에서 알츠하이머를 발견할 수 있다.

## 개요

Rowan 대학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 연구진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항체검사를 곧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한 단계 초기에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 키워드

항체검사, 알츠하이머병

Rowan 대학 정골의학(osteopathic medicine) 연구진에 따르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항체검사를 곧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치료가 가능한 단계 초기에 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혈중 항체는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보여준다.**

현재, 알츠하이머병<sup>1)</sup>에 대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은 혈액검사는 없다. 이 연구는 올란도(Orlando)에서 개최된 전미의학협회(American Osteopathic Association)의 정골의학 컨퍼런스/박람회(Osteopathic Medical Conference and Exposition)에서 Robert Negele박사에 의해 제시되었다. 수많은 질병을 발견하고,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식별하기 위한 혈액기반 바이오마커로서 어떻게 자가항체가 작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인간의 혈액 내에 수천 개의 자가항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자가항체는 몸 전체 기관과 조직에 의해 생성된 혈액을 매개로 하는 세포파편(blood-borne cellular debris)과 결합한다.

**개개인은 각자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자가항체 프로파일은 연령, 성별 그리고 특정 질병이나 부상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 질병은 발견되었을 때 질병의 존재를 드러내는 바이오마커로서 제공되는 자가항체 프로파일의 특성 변화를 야기한다.

알츠하이머병에서 뇌는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변화하기 시작한다. 잠복기상 태에서 항체를 감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의사를 통해 생활습관의 변화 또는 가능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며, 이것은 가장 치명적인 증상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도록 한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건강한 혈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1) 알츠하이머병은 약 530만명 미국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국내 사망의 10대원인 중 하나임.

예방조치임이 분명하다.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뇌졸중, 과체중 모두 혈관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면서 뇌혈관이 약해지고 불안정해짐에 따라 뇌반응 자가항체(brain-reactive autoantibodies)를 포함하는 혈장 성분이 뇌로 새어나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가항체는 신경세포에 결합할 수 있고,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물(beta-amyloid deposits) 축적을 가속화할 수 있다.

Negele박사는 “혈관질환으로 이어질 동일 조건들의 대부분은 또한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기 질병발견에는 상당한 이점이 있다. 잠복기 질환을 발견한 사람들은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피하기 위하여 식단을 살피며, 운동을 하고, 체중과 혈압 문제를 관리하는 등 혈관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검사는 또한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다발성경화증(multiple sclerosis, MS) 그리고 유방암과 같은 타 질환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Rowan 대학 가정의학과 조교수 Jennifer Caudle는 의사들이 환자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약이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건강에 위기가 발생할 때까지 영양과 운동에 대한 조언을 무시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자신의 예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환자들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원문정보 ■

<http://www.medicalnewstoday.com/articles/301107.php>